

인천정유, Sinochem 인수 유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중국 국영석유기업 선정 ... 5월말 최종결정

인천정유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 국영석유기업인 Sinochem이 선정됐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부장판사 이동명)는 법정관리중인 인천정유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Sinochem을 선정했다고 4월24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인천정유 매각 주간사인 영화회계법인-KDB&Partners 컨소시엄과 함께 입찰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Sinochem이 인수금액과 유상증자 비율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Sinochem은 6500억원의 인수금액과 100% 유상증자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양해각서(MOU) 체결 시 인수금액의 5%, 최종계약시 10%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토록 했으며 인천정유가 중국기업으로 넘어가 국가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생산설비 및 사업장의 해외이전 불가를 매각 조건에 못박았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inochem은 실사와 세부협상 등을 거쳐 5월 말께 최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정유 인수전에는 Sinochem 외에도 국내 종합중공업 그룹인 STX지주회사와 석유 수입기업인 바울석유, 코엔팩 등이 참여했으나 인수조건에서 Sinochem과 큰 차이가 나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루 27만5000배럴의 정제능력을 갖고 있는 인천정유는 2001년 8월 부도가 난 후 법정관리 상태에서 제3자 매각을 추진해왔다.

<화학저널 2004/04/26>